

## “시·군 통합 반대, 성장 동력 찾자”

본지 긴급좌담회 ‘속초지역의 통합 건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개최 ... 패널 8명 참석 열띤 토론

### 일방적 추진에 불쾌감 일부 찬성의견도 보여

고성지역 주민들은 최근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설악권 4개 시·군(속초-고성-양양-인제) 통합 움직임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지역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5면〉

또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주민 여론이 찬성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행정과 주민들이 합심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성장 동력을 만드는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본지는 지난 23일 간성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한 고성군주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와 고성군의회 의원 등 주민 대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 지역의 통합 건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이영일 고성군변영회장(64세)은 “속초에서 시·군 통합에 대해서 한마디 상



지난 23일 본지가 고성군주민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통합 관련 긴급좌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다”며 “우리 고성엔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군이어서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주민들도 그런 의견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반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덕용 고성군이장단협의회장(60세)은 “일부 주민들이 통합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4개 시·군이 통합되면 모

든 것이 설악시(속초)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고성군 상권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돼 반대한다”고 했다.

고성군의회 함명준 부의장(52세)은 “고성군의회 전체 의원들도 반대하며, 지역단체들과 적극 결합해서 뜻을 관철시켜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통합이 됐을 때 경기 침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합이 되면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

했다. 황화선 간성재래시장변영회장(64세)은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도 주민들이 속초로 많이 나가는데, 통합된다고 하면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만간 상인회에서 회의를 해서 반대운동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성청년회의소 최준현 상임부회장(40세)은 “안건을 내서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회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

다”며 “앞으로 반대 활동이 시작되면 우리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단체 반대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귀농인 김용자씨(51세, 여)는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3년 동안 귀농을 준비하고 막상 고향에 와보니 너무 발전된 게 없었다”며 “인구 유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간성읍내에서 신원안경원을 운영하는 안숙녀 대표(50세, 여)는 “지금까지 통합을 안하고 살았지만 좋아진 게 별로 없다. 바뀌서 좋을지 안 좋을지는 바꿔봐야 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가 너무 어려워 통합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동균 고성21 공동대표는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발전 가능성으로 봐도 통합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성장 동력이 약하다 보니 찬성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선장이 나를 따라오라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통합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광호 · 원광연 기자

## 고성군 새해 예산 2,372억원 편성

황종국 군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군의회 12월 16일 의결

고성군의 내년도 당초예산이 올해 2,167억원보다 9.4% 증가한 2,372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가 2,190억원 특별회계가 182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등 경제분야가 30.8%인 675억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가 47.6%인 1,043억 원 △일반공공행정과 군민의 안

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가 6.5%인 141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이 15.1%인 331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3억원, 하수도 10억원, 의료급여기금 10억원, 주민소득지원 20억원, 수질개선 3억원, 상수도사업 140억원 등이다.

황종국 군수는 지난 25일 고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1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원들이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군수는 “내년에는 민선5기 3년차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고 많은 사업들을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신규사업과 시설투자보다는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일자리창출 사업, 주민복지사업, 농어촌개발사업 등 서민생활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해서 효율적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군수는 또 “지난 8월 오랜 숙원이었던 국회의 정연수원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며 금강산 육로관광이 하루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우리의 희망과 계획을 다시금 정비하고 튼튼히 해서 더 높고 단단한 성공담을 쌓을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모아달라”고 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예산결산특



황종국 고성군수가 지난 25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성군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차례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한 뒤, 1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